

캐릭터 시트 하나기 사쿠타로



●공개 정보:

업다이크 탐정 사무소에 소속된 견습 탐정.

VR로 진행되는 수사 훈련 게임에서는 고득점을 기록해 오고 있지만, 현실에서의 현장 일은 오늘이 처음. 뱅뱅이 안경을 쓴 민머리 청년이지만, 눈빛은 날카롭다.

심문 담당.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상대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면 알 수 있는 특기를 가졌다.

●조사 내용

KOBUSHI 클럽 PM 23:48 —

땀과 피의 냄새로 진동하는 지하실. 환풍기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실내의 공기가 순환되지는 않는 것 같다.

나는 그 근처에 있던 파이프 의자에 걸터앉아, 목과 팔 관절을 푹푹 풀어 줬다. 자연스럽게 험상궂은 얼굴이 된다.

이번은 오니가시마 선배와의 첫 공동 수사다. 아니, 원래도 나에게 있어서는 현장 일은 처음이다. 분명 제대로 탐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시험도 겸하고 있을 것이다. 실패할 수는 없다.

오니가시마 씨는 덩치가 큰 남자로, 살짝 위압적인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착실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확실히 중학생 수준의 수학 실력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으로, 추리에는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세계라도 선배는 대접은 해야 하는 법이다. 너털너털한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신경 쓰이지만, 사적인 부분까지는 파고들지 말자.

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

목표 CHECK! (※게임 종료 시에 분기가 있습니다)

※오니가시마 선배에게, 자신을 한 명의 탐정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를 듣는다.

하나기 (좋아, 해 볼까)

나는 방을 빌려서, 아이언 피스트를 죽일 만한 놈들과 일대일로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파이프 의자에 걸터앉아, 한 사람씩 방 안으로 호출한다. 우선, “저거너트” 랜디.

싸움꾼이란 말이지. 지금도 하프 팬츠 한 벌 차림으로, 온몸에 난 상처를 조용히 훑어 보고 있다.

어떠한 흥기를 숨기고 있는 모습도 아니다. 이것이 그의 프라이드란 것일까.

하나기 「랜디, 오늘 시합은 당신이 나섰지? 아이언 피스트와 싸웠다고?」

랜디 「아아, 그렇다. 의외로 낙승이었지.」

하나기 「시합 전에는 뭘 했지?」

랜디 「홍 코너 측 대기실에서 정신 통일을 하고 있었다. 그것뿐이다.」

하나기 「그 이후에 대해서도」

랜디 「별로 이렇다할 건 없다. 시합에서 이겼다. 뭐, 세컨드와 술을 마셨었다.
녀석 꽤나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더군.」

하나기 「세컨드라면?」

랜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중년 남자다. 항상 런닝 셔츠 차림으로……
뭐, 무해한 남자다.」

하나기 「그렇군……. 아이언 피스트와는 그 이후로 만나진 않았고?」

랜디 「아아, 다음에 봤을 때는 죽어 있었지.」

나는 일단 랜디를 나가게 했다. 다음 인물을 심문하자.

※

나는 이어서 저미는 여자 메리를 불렀다. 20세의 여성으로, 이 KOBUSHI 클럽의
공사에도 관여했다. 또한, 파이터로서도 본격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 같다.
어쩐지 그녀의 홈그라운드라고 생각되기 시작했다.

하나기 「들어 와.」

메리는 꾸벅 허리 굽혀 인사를 했다. 미소를 짓고 있지만, 환영받는 분위기는
아니다.

하나기 「시합 전 시간대에는 어디 있었나?」

메리는 비스듬히 위쪽을 가리켰다. 밖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후에는
물건을 안는 듯한 몸짓을 한다.

설마, 심문 중에도 계속 말을 하지 않을 생각인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다고……?

하나기 「시합 중에는?」

메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필사적인 몸짓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내가 열심히 그것을 해석해 본 결과, 아무래도 밖에서 어떠한 짐을 이곳으로 옮겨 온 것 같다. 그것은 사무소 앞에 놓아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쇠망치로 무언가를 때리는 듯한 몸짓도 했기 때문에, 분명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맞는지는 모르겠다.

하나기 「그럼 시합 후에는 무엇을?」

이번에는 입구 쪽을 가리키며, 담배를 피워 대는 듯한 몸짓을 한다. 철두철미, 제스처밖에 안 할 생각이다.

하나기 「외에 더 하고 싶은 말은?」

메리는 두 팔로 크게 엑스를 만들었다. 나는 어이가 없어하며, 메리를 돌려보냈다. 과연, 힘든 사건이다.

※

랜디와 메리의 심문은 끝났다. 수수께끼는 남지만, 조금씩 정보를 채워 나가면 도달할 수 없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음은 저 양아치 같은 남자를 불러 보자.

클래식 조니. 낡고 색 바랜 파카에 「Don't spend money!」라고 적혀 있는 대로, 돈을 쓰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고 한다. 그가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뿐일 거라고 호언장담한다. 반대로 말하면, 그 외의 정보가 거의 없다.

하나기 「시합 전에는?」

조니 「기다려, 이 심문은 유료인가? 너, 나에게서 돈을 받아 낼 건가?」

하나기 「아니, 공짜다.」

조니 「좋아, 넌 내 편이다.」

이런 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에게 하고 있는 거냐? 하고 묻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본론으로 들어갔다.

하나기 「당신은 파이터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곳에?」

조니 「오랜만에 아이언 피스트를 만나러 왔다. 엄청 잘 나간다고 들어서 말이지. 친구가 잘 나가고 있다면, 얼굴 한 번 비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기 「그렇군……. 그럼, 시합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에는 무엇을?」

조니 「시합을 보려고 하는데, 가드들에게 끌려 나갔다. 돈을 내라고 하길래 한 대 때렸거든.」

하나기 「음? 시합을 보지 않았다는 건가?」

조니 「아아, 그렇다.」

하나기 (아이언 피스트를 만나러 왔는데 시합을 보지 못했다? 어떻게 된 상황이지?)

하나기 「그래서, 그 다음은?」

조니 「입구 근처에서 말싸움을 하고,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들어갈 타이밍을 재고 있었지. 그랬더니 클럽이 시끄러워지더군. 그 틈을 타서 내려갔더니, 아이언 피스트 녀석이 죽어 있는 게 아닌가! 그 못생긴 얼굴을 잊을 리가 없지!」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다는 생각에, 나는 일단 조니를 내보냈다. 마지막은 크라운이다.

※

하나기 「크라운. 들어 와.」

크라운 「고생 많으시네! 전설의 피에로, 더 레전드 오브 크라운이다! 캔디 먹을래?」

하나기 「자, 앉아.」

크라운 「캔디는?」

하나기 「괜찮다.」

과장된 포즈를 취하며 의자에 앉은 피에로는, 크라운이라고 소개했다. 활짝 웃고 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다. 피에로 공포증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위압감이 느껴진다. 그가 KOBUSHI 클럽의 파이터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크라운 「뭐든 이야기하지!」

하나기 「아아, 그럼 시작하지. 시합 전 시간대에는 어디에 있었나?」

크라운 「그건 모르겠어.」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째서, 갑자기 목소리 톤이 —

크라운 「나는 시간에 얽매인 생활이 싫어. 어디에나 있고, 동시에 어디에도 없지.」

하나기 「……그럼, 그 후에는?」

크라운 「그런 질문에 답하는 것도 불가능해.」

하나기 「알았어, 질문을 바꾸지. 당일 누구를 만났나?」

크라운 「경영자와 이야기를 했어! 메리와의 만나서 제스처로 대화를 했지!」

하나기 「외에 전하고 싶은 말은 있나?」

크라운 「나, 크라운은 아이언 피스트를 죽이지 않았어! 믿어 줘! 그에 대해서는 원한도 없고, 벌린 돈도 없으니까!」

나는 점점 머리가 아파지는 것 같아, 크라운을 내보냈다.

고개를 돌려, 심문에 대하여 상기해 본다. 모두의 눈을 보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사람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것이 나의 특기다. 하지만, 살인을 저지르고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

아직 사건의 전모가 잡히지 않는다. 일단 오니가시마 선배와 합류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불안이 지워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내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탐정 사무소에서의 입지가 바닥인 채로, 앞으로도 VR 수사 훈련 게임에서만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애송이로 여겨지고 말 것이다. 반드시 선배와 협력하여 범인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과연, 오니가시마 선배는 나를 제대로 된 탐정으로 인정해 줄까?

—

목표 CHECK! (※게임 종료 시에 분기가 있습니다)

※오니가시마 선배에게, 자신을 한 명의 탐정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를 듣는다.